

조선 빅3 CEO “수주절벽 대신 없다… 경쟁력 높여 일감 확보”

현대·삼성·대우조선해양
신년사 통해 핵심과제 제시

“작년까지 기록적인 수주절벽
모든방법 동원 원가경쟁력 ↑”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정성림 대우조선해양 사장

지난해 최악의 ‘수주절벽’을 겪은 국내 조선업들이 ‘일감 확보’에 총력을 펼친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수장들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중국·동남아시아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물량 확보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2015년부터 시작해 2016년에 지난해까지의 기록적인 ‘수주절벽’은 중국과 싱가포르 조선사들의 낮은 가격에 밀렸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조선 ‘빅3’ 최고경영자(CEO)들은 올해 ‘원가경쟁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선업계 말형인 현대중공업의 강환구 사장은 신년사

를 통해 “올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일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가경쟁력을 필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조선 생산조직의 공정별 운영 및 도크별 선종 전문화 ▲엔진 주요 기능품 국산화 ▲전략적 기자재 구매 ▲설계 품질 향상 및 자재

비 절감 ▲불요불급한 경비를 축소하는 긴축 경영 등을 제시했다. 오는 2020년부터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화두가 된 ‘친환경’ 선박에 대비한 기술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기술과 품질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

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사장은 “올해는 통합안전교육센터 건립과 안전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원년’을 달성하려고 한다”며 “70여개의 안전교육과정을 진행해 안전교육의 일대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삼성중공업을 이글게 된 남준우 신임 사장은 일감 확보를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경영정상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감절벽의 악순환을 끊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남 사장은 “올해는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일감을 제 때 확보하려면 기술 개발, 낭비 요소 및 비효율 제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원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물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ENI 코랄, BP MAD DOG2 등 대형 프로젝트의 공정을 철저히 준수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현장의 모든 임직원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개선 활동에 적

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설계는 설계 개정률을 최소화하고 물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추가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연구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스마트십 및 친환경 선박 개발, 생산 자동화 방안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은 내년 5월초 완료를 목표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정성림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4일 본사에서 신년회를 열고 신년사를 발표한다. 이날 정 사장은 신규수주 확대와 수익성 개선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사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철저한 생존전략 실행,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정착, 관리체계의 고도화, 희망과 활력의 일터 만들기 등 4가지 경영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초고속 전송 ‘QLED 커브드 모니터’ 공개

삼성전자, 美 CES서 선보여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 2018’에서 인텔의 차세대 데이터 전송 규격인 ‘턴더볼트3’를 지원하는 QLED 커브드 모니터 ‘CJ791’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턴더볼트3는 USB 3.0 보다 8배 빠른 최대 40Gbps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HDMI 1.4의 4배에 달하는 비디오 대역폭을 제공하는 차세대 데이터 통신 규격이다. UHD급 고화질 영상을 모니터 2대에서 끊김 없이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

삼성전자 CJ791은 34형 크기에 21:9 화면비를 제공하는 광역 디스플레이로 HD보다 2.5배 높은 해상도인 울트라 와이드 QHD(3440×1440)를 지원한다. 멀티태스킹 환경과 그래픽·게이밍 등 고화질 작업에 최적화된 모니터다.

이 제품은 원당당 기술이 적용돼 sRGB 125% 수준의 높은 색 영역 재현으로 어떤 장면에서도 세밀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1500R 곡률이 주는 시각적 편안함과 몰입감도 장점이다.

삼성전자는 CJ791에 커브드 모니터 제



품 최초로 USB-C형태의 단일 포트에 턴더볼트3 통신규격까지 지원하는 차세대 통합 포트를 탑재했다.

삼성 노트북9 울웨이즈 일부 모델과 맥북 등 턴더볼트3를 지원하는 고성능 노트북 PC와 연결하면 고화질·멀티태스킹 환경에서 더욱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USB-C 단자와도 완벽히 호환되기에 최대 85W까지 정격 출력을 지원한다. 케이블 하나로 그래픽 출력과 동시에 노트북 PC 충전 또는 스마트폰 고속 충전까지 가능한 셈이다.

게임 모드를 통해 색감과 색상 대비를 직관적으로 조정해주며 4ms(0.004초)의 빠른 응답속도로 끊김 없는 화면도 구현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SK하이닉스 ‘사회적 가치 창출’ 본격화

저전력 제품생산 주도·협력사 환경개선 지원

임원급 구성 ‘지속경영추진’ 신설

SK하이닉스가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창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SK하이닉스는 새해 경영방침 중 하나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정하고, 연발 조직개편을 통해 이를 전담하는 임원급 조직 ‘지속경영추진’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박현 SK하이닉스 상무를 담당으로 하는 지속경영추진은 반도체 사업을 기반으로 새롭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추진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제조 공정에서 수질·대기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리드하고, 저전력 신제품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해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의 환경, 안전, 건강 수준 개선을 지원하는 등 각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사회적 가치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지표가 필요



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약 세달 간에 걸쳐 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교수 등과 함께 논의와 검증을 거쳐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구축했다.

시범 측정 결과, 지난해 1~3분기 동안 SK하이닉스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 금액은 5조152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거둔 재무성과(당기순이익)인 7조4220억원의 약 69% 수준이다.

사회적 가치 측정에 활용된 대표적인 성과 지표로는 생산 공정 및 제품 사용상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 환경 개선 정도, 협력사 금융·기술·교육 지원 등 동반성장

활동 및 사회적 기업 생산 제품의 구매와 같이 기업-환경-사회생태계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반영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성된 사회공헌 금액,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인 법인세, 임금, 배당 등 사회의 경제 주체들에게 환원되는 금액 등도 포함했다.

SK하이닉스는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 달 말에는 그룹 관계사 CEO들이 모이는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측정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CJ헬로, 자녀 학습 돕는 교육전용폰 선택

‘EBS 열공폰’ 출시
공부한만큼 일반앱 이용

헬로모바일이 ‘EBS열공폰’으로 차별화 행보를 이어간다.

CJ헬로는 일반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량을 제한하면서 학습콘텐츠는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EBS열공폰’을 단독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열공폰은 EBS 강의를 들을수록 일반 앱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돼 자녀 스스로 공부하도록 독려하는 학습보상제 스마트폰이다. 학습강의를 1시간 들을 때마다 ‘바른습관 포인트’가 5000포인트 충전된다. 이 포인트로 일반 앱을 30분 정도 사

용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의 학습현황뿐만 아니라 ‘무슨 앱을 열거나 썼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EBS 강의는 초·중·고 학습, 영어, 교양 등 7개 카테고리에서 11만 개로 구성됐다. 개통일로부터 30개월간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요금제는 ‘EBS열공 500M B(월 2만9700원, 음성 30분)’, ‘EBS열공 2GB(월 3만9600원, 음성 100분)’ 두 종류로 구성된다.

EBS열공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J7’으로 운영된다. 단말기 가격은 59만 4000원이고, 공시지원금은 29만 7000원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카톡으로 영화 예매하고 음악 들어요

카카오, 순차 업데이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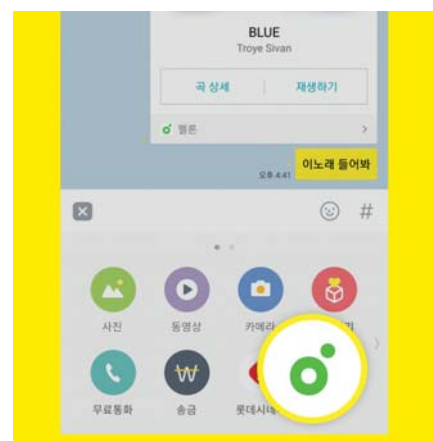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하고 ‘롯데시네마 영화예매’, ‘멜론 워드 카카오’, ‘문자 모아보기’ 등의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생활 서비스를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더보기탭을 개편했다. 날씨를 비롯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프스타일, 장보기,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의 생활 서비스를 전면 배치했다. ‘MY’ 메뉴도 추가했다. MY에서는 카카오톡에서 구매한 상품 내역과 함께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 관심 상품, 관

심 스토어 등을 모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 서비스도 선보였다. 더보기탭에서 인기 영화를 보고 선택하거나, 채팅방에서 + 버튼을 누른 뒤 롯데시네마를 클릭하면 된다.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뒤 관람을 원하는 영화, 극장을 선택해 예매하면 된다.

‘멜론 워드 카카오’ 서비스를 제공해 음악 서비스 멜론과 연동도 강화했다. 채팅방에서 ‘멜론’을 누르면 접속 가능하다. 세대별 좋아하는 음악, 최신&인기 음악, 추천 태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멜론과 카카오톡을 연동한 유료 회원의 경우 카카오톡 내에서 전곡 감상을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 화면. /카카오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모아보기’ 기능도 추가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내역을 카카오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